

2019년 3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부각되며 하락 바이오, 반도체 업종 하락 주도

미 증시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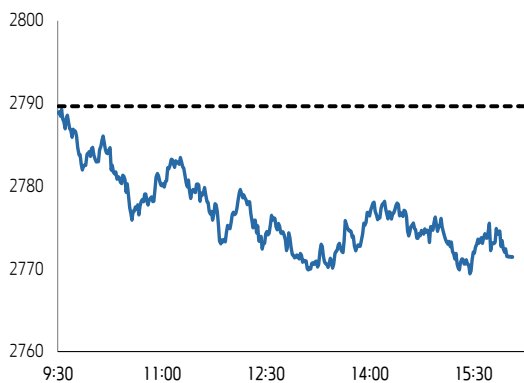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느린 성장이 New Normal’ 이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 이런 가운데 바이오 업종이 약가인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속에 하락 주도(다우 -0.52%, 나스닥 -0.93%, S&P500 -0.65%, 러셀 2000 -2.01%)

OECD 가 2019 년 글로벌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11 월에 비해 0.2%p 하향 조정(3.5%→3.3%). 특히 영국(-0.6%p), 독일(-0.9%p), 유로존(-0.8%p)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컸음. 미국은 0.1%p 하향 조정된 2.6%, 중국도 0.1%p 하향 조정된 6.2%로 전망. 이런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느린 성장이 New Normal’ 이라고 주장하며 성장을 둔화를 기정 사실화한 점도 부담.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마이너스 금리, QE 등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도 언급.

그러나 OECD 는 각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윌리엄스 총재도 “연준 정책으로 경제가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기침체로의 전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완만하지만 미약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 비록 섯다운과 무역분쟁으로 일부 산업에 부담이 되었으나, 임금 상승과 고용안정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바이오업종은 약가인하 정책 가속화 및 FDA 의 스코트 고트립 국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하자 급락. 고트립 국장은 새로운 약물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 바이오 업종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라는 점이 부각. 반도체 업종은 JP 모건이 DRAM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여파로 급락하는 등 업종별 부정적인 소식도 미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률(%)	변동률(%)	지수	지수	변동률(%)	변동률(%)
지수	Close	D-1	지수	Close	D-1	지수	D-1
KOSPI	2,175.60	-0.17	홍콩恒生	29,037.60	+0.26		
KOSDAQ	746.70	-0.17	영국	7,196.00	+0.17		
DOW	25,673.46	-0.52	독일	11,587.63	-0.28		
NASDAQ	7,505.92	-0.93	프랑스	5,288.81	-0.16		
S&P 500	2,771.45	-0.65	스페인	9,296.70	+0.42		
상하이종합	3,102.10	+1.57	그리스	707.17	+1.19		
일본	21,596.81	-0.60	이탈리아	20,851.56	+0.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바이오 업종 부진

길리어드사이언스(-2.28%), 암젠(-3.00%), 바이오젠(-2.72%) 등 바이오 업체와 화이저(-2.40%), 머크(-1.15%) 등 대형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정책 가속화 우려로 하락 했다. 더불어 스코 코트립 FDA국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담배 혐오론자인 고트립의 사임으로 필립모리스(+0.05%), 알트리아(+3.39%) 등 담배제조업체들은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5.15%), 인텔(-1.36%), 브로드컴(-2.04%) 등 바이오 업종은 JP모건이 DRAM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하락 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클리블랜드 리서치가 매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자 낙폭이 컸다. 엑손모빌(-1.13%), EOG리소스(-3.73%) 등 에너지 업종과 슬룸베르거(-3.17%), 할리버튼(-4.79%) 등 원유서비스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GE(-7.89%)는 부진한 실적 전망 속에 급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페이스북(+0.73%), 알파벳(-0.36%), 넷플릭스(+1.50%)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망중립성 논란 영향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87%	대형 가치주 ETF(IVE)	-0.72%
에너지섹터 ETF(OIH)	-3.17%	중형 가치주 ETF(IWS)	-0.95%
소매업체 ETF(XRT)	-0.79%	소형 가치주 ETF(IWN)	-1.85%
금융섹터 ETF(XLF)	-0.64%	대형 성장주 ETF(VUG)	-0.60%
기술섹터 ETF(XLK)	-0.52%	중형 성장주 ETF(IWP)	-0.9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1%	소형 성장주 ETF(IWO)	-2.13%
인터넷업체 ETF(FDN)	-0.70%	배당주 ETF(DVY)	-0.30%
리츠업체 ETF(XLRE)	-0.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8%
주택건설업체 ETF(XHB)	-0.7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6%
바이오섹터 ETF(IBB)	-3.13%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1.46%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49%	물가연동채 ETF(TIP)	+0.12%
반도체 ETF(SMH)	-1.69%	Long/short ETF(BTAL)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1.88	-1.28%	-0.57%	+0.17%
소재	343.96	+0.20%	-1.29%	+1.94%
산업재	627.76	-0.94%	-2.33%	+1.55%
경기소비재	870.42	-0.56%	-0.17%	+1.25%
필수소비재	557.19	-0.10%	-0.10%	+1.36%
헬스케어	1,043.04	-1.47%	-1.78%	-0.26%
금융	434.36	-0.71%	-1.39%	+0.29%
IT	1,233.76	-0.55%	-0.84%	+2.86%
커뮤니케이션	156.35	-0.01%	+1.52%	+0.82%
유틸리티	288.29	+0.03%	+0.67%	+3.79%
부동산	215.35	-0.26%	+0.59%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된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3% MSCI 신흥 지수 ETF 도 0.5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52 계약) 여파로 0.25pt 하락한 280.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으나, 관련 이슈는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ECB 또한 신 LTRO 를 통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 위축을 제한한다. 더 나아가 미국 또한 금리인상 시기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12 개월 Fwd PBR 이 0.86 배에 그치는 등 펀더멘탈이 주요국 보다 양호해 외국인 매물 출회가 제한 될 수 있다.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달러/원과 엔화의 변화가 제한되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무역적자 확대

12 월 미국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9% 증가한 598 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히 수출이 전월 대비 1.9% 감소 했으나, 수입이 2.1% 증가해 적자폭이 더욱 컸다.

2 월 미국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자수는 시장 예상치(18 만건) 보다 소폭 증가한 18 만 3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였던 30 만 건을 크게 하회한 수준이다. 지난 1 월 고용자수는 기존 발표치(21 만 3 천건) 보다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국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수요 둔화 우려속에 하락 했다. 더불어 EIA 가 발표한 원유재고보고서에서 원유재고가 지난주 730 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도 부담이었다. 다만, 같이 발표된 가솔린은 420 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도 24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되자 낙폭은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EIA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 후 국제유가는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다.

달러화는 무역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반면, 호주달러는 경기 둔화 우려속에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완만하지만 미약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달러화에 영향을 줬다.

국채금리는 주가하락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무역적자폭이 확대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 였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미약한 점도 있다고 주장해 하락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다만, 달러 강세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7%, 철근도 0.6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22	-0.60	-1.26	Dollar Index	96.854	-0.01	+0.73
브렌트유	65.99	+0.20	-0.89	EUR/USD	1.131	+0.02	-0.53
금	1,287.60	+0.23	-2.54	USD/JPY	111.77	-0.11	+0.69
은	15.085	-0.13	-4.32	GBP/USD	1.3179	+0.01	-0.98
알루미늄	1,866.00	-0.43	-2.91	USD/CHF	1.0048	+0.07	+0.33
전기동	6,468.00	-0.15	-0.59	AUD/USD	0.7028	-0.79	-1.54
아연	2,788.00	+0.29	+1.57	USD/CAD	1.3434	+0.63	+2.11
옥수수	372.50	-0.86	-0.33	USD/BRL	3.8389	+1.61	+2.45
밀	450.00	-2.76	-3.59	USD/CNH	6.7181	+0.19	+0.54
대두	902.00	-1.29	-1.61	USD/KRW	1128.80	+0.29	+0.91
커피	98.70	-0.95	-0.25	USD/KRW NDF1M	1127.35	+0.21	+0.9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90	-2.72	+0.72	스페인	1.109	-4.20	-4.80
한국	2.020	-0.70	+2.50	포르투갈	1.419	-3.60	-2.90
일본	-0.004	-1.40	+2.10	그리스	3.736	+4.10	+5.20
독일	0.128	-4.00	-2.00	이탈리아	2.588	-11.70	-19.40